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꾸린다 ‘ESG 실천’ 대학생 릴레이 헌혈운동 벌인다

전주시,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대비 분야별 신속·철저한 대응 위해 구성·운영

정부가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전주시가 탄탄한 방역과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의료계와 경제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 발표에 대비해 경제민생, 방역의료 등 분야별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위한 '전주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은 김승수 전주시장을 단장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 등 20여 명으로 꾸려진다.

지원단 내에는 △경제민생 △방역의

료 등 2개 분과가 설치되며, 각 분과에서는 분야별 의제에 대한 자문 의견을 일차적으로 취합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경제민생 분과의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과 기업·금융·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지원, 사회·문화 분야 회복 지원 등의 의제를 다루고, 방역의료 분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 감염 확산방지 대책, 의료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8일 지원단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가진 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시작되면 코로나19 방역의 핵심 조치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기준 등이 서서히 완화되는 등 변화가 예상돼 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은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자원을 쏠기보다는 사망 방지와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전주대·전주교육대·예수대·전주기전대·전주비전대 6개 대학 총학생회, 내달 3일부터 추진

최근 전주시와 전주시 6개 대학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동실천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6개 대학교 학생들이 릴레이 헌혈운동을 통해 ESG 실천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전북대학교·전주대학교·전주교육대학교·예수대학교·전주기전대학교·전주비전대학교 등 6개 대학 총학생회는 다음 달 3일부터 '전주시 대학생 따뜻한 나눔, 릴레이 헌혈 운동'을 벌인다.

릴레이 헌혈 운동은 22일 0시 기준 전북의 혈액보유량이 3.2일분으로 혈액적정보유량인 5일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대

생들이 ESG 가치 중 'S'인 지역사회 공헌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됐다.

각 총학생회에서는 캠페인과 자원봉사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으로, 헌혈버스가 대학별로 방문해 단체 헌혈에 나서게 된다.

한 총학생회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매년 헌혈행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참여가 급속히 줄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릴레이 헌혈을 통해 지역의 혈액수급 상황이 조금이나마 호전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시와 대학의 ESG 공동실천은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환경과 나눔의 가치를 이행해나가며 지역의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릴레이 단체헌혈이 혈액수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전주시 대학생들이 의미 있는 ESG 실천 과제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와 전북대학교·전주대학교·전주교육대학교·예수대학교·전주기전대학교·전주비전대학교는 지난 1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대학 ESG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가져

올해 100세 맞이한 이순재 씨에 청려장 수여·노인의 장·공로상 수여 등 진행

전주시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지회장 전영배)는 25일 전주시지회 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전주시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은 박만봉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노인강령 낭독, 청려장(장수지킴이) 수여, 노인의 장 및 공로상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승수 전주시장은 올해 100세를 맞이한 이순재(여, 효자5동) 씨에게 무병장수의 상징인 청려장을 전달했으며, 전영배 지회장은 축하의 꽃다발을 선물했다.

전영배 지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예년과 같이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가정과 국가가 건강해지는 만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생활해 주시길 바



전주시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는 25일 전주시지회 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전주시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다"고 전했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금의 풍요로운 시대가 있기까지 그간 어르신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건강하게 극복해서 어르신들이 활짝 웃는 날이 빨리 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창의성·실용성 갖춘 자전거 조형물 대학생 선보여

전주시·전북대 관학협력 자전거 홍보조형물 시상식 열고 전주시장상 수여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공영자전거 '꽃심이'를 활용해 태양광 탄소발열 자전거와 차량을 인지하는 똑똑한 자전거를 제작하는 아이디어를 뽑았다.

전주시는 25일 전주시장실에서 전북대학교 학생들과 지도교수, 산업체 멘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전북대 관학협력 자전거 홍보조형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공영자전거 '꽃심이'를 활용해 자전거도시 전주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대학교 캡스톤 디자인과정 수강생들은 지난 4월부터 전공 지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꽃심이'를 활용한 조형물 제작에 몰두해왔다.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는 자전거에너지상에 친환경 태양광 탄소발열 자전거를 제작한 '데미 잘 맞조'팀이 선정됐다. 자전거에 태양광판을 설치해 안장과 손잡이의 보온이 가능도록 설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전거안전상에는 차량을 인지하는 똑똑한 자전거를 만든 '스마트꽃심이'팀이 뽑혔다. 자전거 후방에 카메라 센서를 부착해 후방차량과 사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 자전거조형물상에는 자



전주시는 25일 전주시장실에서 전북대학교 학생들과 지도교수, 산업체 멘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전북대 관학협력 자전거 홍보조형물 시상식을 개최했다.

거 부품의 소중함과 재사용을 부각하는 조형물을 만든 '자!정거'팀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산업체가 협력해 만든 '비빔밥'을 활용한 자전거 시계도 눈길을 끌었다.

시는 이날 창의성과 실용성을 갖춘 자전거 조형물을 출품한 학생들에게 전주시장상을 수여했다. 자전거 조형물들의 경우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에 비치돼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김영선 전북대학교 교수는 "자전거도시 전주를 알리는 뜻깊은 일에 참여하게 돼 보람있다"며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빛나는 아이디어를 통해 창의적인 자전거 조형물을 만들어주시는 학생 및 지도교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신규 공무원·실무수습 직원 맞춤형 교육 실시

전주시가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들을 위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신규 공무원 및 실무수습 직원 103명을 대상으로 조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이숙현 이연유 코칭

센터 대표가 초청돼 △성 감수성·인권에 대한 생각찾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스킬(경청과 공감) △개인의 삶의 가치와 공무원 삶의 가치 융합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라포 형성을 위한 아이디어 워크숍 카페' 등 그룹별 수업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김승수 시장과 함께하는 특강과 MZ세대와의 대화 등 특별한 시간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 시는 매년 신규 공무원과

임용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기본교육과 소양교육 등을 실시해 업무능력을 높이고 시민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새내기 공무원들이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공직자로서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